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9, Vol. 31, No. 3, 725-748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 역할갈등,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가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

손 은 정†

계명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 수퍼비전 관계 요인으로 역할갈등, 그리고 문화적 요인으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최근 6개월 이내 개인 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수퍼바이지 392명을 대상으로 수퍼비전 애착 전략 척도, 역할갈등 척도, 수퍼바이지 비개방 척도, 그리고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SPSS Macro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역할갈등은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역할갈등은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거절과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척도의 하위척도인 규범에 대한 동조는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을 조절하였다. 넷째,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척도의 하위척도들은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거절과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을 조절하지 않았다. 다섯째,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는 역할갈등의 매개를 통해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규범에 대한 동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가 추후 연구와 실제에 주는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 역할갈등

---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3385).

† 교신저자 : 손은정,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 Tel: 053-580-5402, E-mail: ejsohn@kmu.ac.kr

www.kci.go.kr

최근 수퍼비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내담자를 보다 잘 보호하고 상담자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 수퍼비전의 성과와 전문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Bernard & Goodyear, 2014; Genuchi, Rings, Germek, & Cornish, 2015). 수퍼비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수퍼비전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노출이라는 기제가 전제되어야 하며, 수퍼바이지가 상담 장면에서 경험했던 곤란한 상황이나 수퍼비전에 대한 느낌들을 수퍼바이저에게 개방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수퍼바이저가 이에 대해 적절하게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Watkins, Budge, & Callahan, 2015).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이란 수퍼바이지가 상담과정과 수퍼비전 과정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수퍼바이저에게 기꺼이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Konx, 2015). 경험적 연구들에서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은 상담에 대한 상담자효능감과 수퍼비전 만족도를 높였으며, 수퍼바이지가 자기개방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상담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주영아, 강순화, 조하나, 2014; Hess et al., 2008).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수퍼바이지가 자발적으로 자기개방을 하도록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주로 불안정 애착과 같은 수퍼바이지의 개인 내적 요인이나 수퍼비전 작업동맹, 역할갈등과 같은 수퍼비전 관계 요인들이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박진희, 유미숙, 2011; Gunn & Pistole, 2012; Siembor, 2012), 문화적 요인도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Chen & Danish, 2010; Wei, Su, Carrera, & Lin,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차원적인 모형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 내적 요인으로서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 수퍼비전 관계 요인으로서 역할갈등, 그리고 문화적 요인으로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들 요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은 수퍼바이저에게 자신을 개방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개인 내적 요인 중 하나이다. 애착이론은 원래 주 양육자와 유아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설명한 이론으로서, 유아가 위협에 처했을 때 양육자가 민감하고 신뢰할만하도록 반응해 주면 유아와 양육자 간에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지만, 양육자가 위협에 대한 유아의 반응에 대해 무시하거나 비일관적으로 대하면 불안정 애착이 형성된다(Bowlby, 1988).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 형성된 애착의 특성은 내적 작동 모델로 내면에 자리를 잡게 되어 성인기에 와서도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하거나 안정적인 성인 애착의 특성을 나타낸다(Mikulincer & Shaver, 2007). 성인 애착은 회피 유형과 불안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회피 유형의 경우 스트레스나 위협을 부인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반면, 불안 유형의 경우 고통이나 위협적인 사건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경험하며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도움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애착 이론은 수퍼비전 장면에도 적

www.kci.go.kr

용될 수 있으며, 수퍼바이지는 수퍼바이저에게 안정 애착을 보일 수도 있지만 불안정 애착을 보이기도 한다(Gunn & Pistole, 2012; Menefee, Day, Lopez, & McPherson, 2014). 초기 수퍼비전에서의 애착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부모와의 애착이나 성인 애착이 수퍼비전 관계나 수퍼비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Riggs와 Bretz(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회피 애착이 높을수록 수퍼비전 작업동맹이 낮아졌으며, Bennet과 BrintzenhofeSzoc, Mohr, Saks (2008)의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의 회피가 높을수록 수퍼바이저와의 관계에서도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ennet 등(2008)의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이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보다는 수퍼바이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의 특성이 수퍼비전 과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이후 연구들에서는 수퍼바이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Gunn과 Pistole(2012)는 수퍼바이저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성인 애착 척도의 문항을 수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Menefee 등(2014)은 수퍼바이저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회피와 두려움에 대한 거절이라는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수퍼바이저에 대한 애착 전략 척도를 개발하였다. 회피 유형은 수퍼바이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지하기 어려워하며, 수퍼바이저와의 관계에 거리를 두고 자신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유형은 수퍼바이저로부터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퍼바이저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수퍼바이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경험적 연구들에서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들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퍼바이지의 불안이라는 성인애착은 자기개방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박진희, 유미숙, 2011). 또한, 수퍼바이저에 대한 회피 애착은 내담자에 대한 개방과 높은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수퍼바이저에 대한 개방과는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불안 애착은 내담자에 대한 개방과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수퍼바이저에 대한 개방과는 낮은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Gunn & Pistole, 2012).

역할갈등

한편, 이러한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이 높을수록 수퍼비전 관계에서의 갈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성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불안정 애착은 갈등에 대한 인식이나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성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불안과 회피 애착이 높을수록 정서조절의 문제가 발생하는 정도가 커졌으며(Ben-Naim, Hirschberger, Ein-Dor, & Mikulincer, 2013), 안정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회피나 불안 애착 유형을 보이는 사람들보다 갈등상황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덜 위협적이라고 느꼈다(Pistole & Arricale, 2003) 또한 회피나 불안 애착이라는 성인애착이 높을수록 갈등상황에서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부적응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심리적 고통이 높아지거나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Ben-Naim et al., 2013; Petersen & Le,

www.kci.go.kr

2017).

이성관계에서 회피나 불안이라는 성인애착은 이와 같이 갈등에 대한 인식이나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수퍼비전 장면에서 수퍼바이저에 대한 애착도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수퍼비전에서의 갈등에 대한 연구는 역할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역할갈등은 수퍼바이저로부터 자신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또는 반대되는 행동을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갈등을 의미한다(Ladany & Friedlander, 1995). 예를 들자면, 수퍼바이저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담개입을 제시할 때, 수퍼바이지는 수퍼바이저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학생으로서의 역할과 상담을 제대로 잘 진행해야 한다는 상담자로서의 역할 간에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수퍼바이저에 대한 회피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불안정 애착이 높을수록 수퍼바이저가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했을 때, 수퍼바이저와의 차이에 대해 더 큰 위협으로 지각하고 정서조절에 문제가 생기며 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이전 연구들에서 회피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수퍼바이저에 대한 불안정 애착은 역할갈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Menefee et al., 2014). 수퍼바이저에 대한 회피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불안정 애착은 역할갈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신성만, 박영근, 김윤희, 박명준, 2016).

그리고 역할갈등은 불안정 애착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동시에,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퍼비전 관계에 갈등이 있는 경우 수퍼비전에서 권력(power)의 차이를 느끼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자기개방의 정도가 낮아졌으며(하정, 홍지영, 2011; Hess et al., 2008), 수퍼비전 관계에서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수퍼바이지가 자신을 개방하는 정도는 낮아졌다(Siembor, 2012). 또한, 수퍼바이지들은 수퍼비전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 수퍼바이저와 소통하기 어렵게 된다고 보고하였다(조윤진, 이은진, 유성경, 2014).

결국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과 관련된 이전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개인 내적 특성인 불안정 애착은 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치며 역할갈등은 수퍼바이지의 개방의 정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역할갈등이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주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조윤진 등, 2014; 하정, 홍지영, 2011; Hess et al., 2008). 따라서, 역할갈등과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 대해 타당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양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를 다양한 대상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Gibson, Ellis, & Friedlander, 2019; Siembor, 2012). 둘째,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과 역할갈등, 그리고 역할갈등과 자기개방 간의 각각의 관계가 유의하다는 결과는 있었으나,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과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역할갈등이 불안정 애착이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과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www.kci.go.kr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그런데 불안정 애착이나 역할갈등 외에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질적 연구 결과에서 서구문화와 달리 우리나라의 수퍼바이지가 자기개방을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수퍼비전의 상하관계를 의식하며 자기개방이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었다(손승희, 2005). 또한, 동양사회에서는 수퍼바이지가 수퍼바이저에게 의존하거나 복종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퍼바이지가 수퍼바이저에게 자기표현이나 자기주장을 하게 되면 도전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보여지게 된다(Bang & Park, 2009; Shim, 2002).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권위를 존중하고 위계에 순응하며 자신의 표현을 억제하는 문화적 가치는 수퍼바이지의 자기 개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관계를 중시하고 상하 관계에 순응하며 자기표현을 통제하는 가치로 밝혀진 변인이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이다(Kim, Atkinson, & Yang, 1999). 선행연구들에서는 아시아인들이 공유하는 공통된 문화적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Kim et al., 1999; Kim, Li, & Ng, 2005). 그 결과 집단주의, 규범에 대한 동조, 정서적 자기통제,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그리고 겸손이 다양한 국가의 아시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가치임이 밝혀졌다(Kim et al., 2005). 그리고 이러한 아시아인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가치는 의사소통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가 높을수록 자신의 고통에 대해 개방하는 정도가 낮아졌고(Chen & Danish, 20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지가 낮아졌으며(Shen & Tsui, 2018), 아시의 문화적 가치가 높을수록 성적 정서적 학대에 대해 자기개방을 하지 못했다(Foynes, Platt, Hall, & Freyd, 2014).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의 하위 척도들에 대한 결과에서는 정서적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간접적이면서 비개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였고, 겸손이 높을수록 의미에 대한 추론이 많아졌고 극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적어졌다(Park & Kim, 2008). 또한 정서적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고통에 대한 자기개방이 낮아지기도 하였다(Wei et al., 2013).

이와 같이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기개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나, 수퍼비전 장면에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의 역할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일반적인 대화 장면에서의 자기개방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수퍼비전 장면에서도 수퍼바이지의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가 높을수록 자기개방의 정도가 낮아질 것이며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에 따라 자기개방을 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주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들 중 감정에 대한 자기통제나 겸손이라는 하위요인이 자기개방이나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나(Park & Kim, 2008; Wei et al., 2013), Kim과 Atkinson, Umemoto(2001)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에 따라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위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퍼비전 장면에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의 효과는 일상적인 대화에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퍼비전 관계에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 중 어떤 요인이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

www.kci.go.kr

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내담자가 고수하는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와 상담과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일관되지 못한 결과들을 보여주었고(Kim et al., 2003; Kim, Li, & Liang, 2002), 이에 대해 Kim 등(2003)은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는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담과정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수퍼비전에서도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는 자기개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른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이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은 하위유형에 따라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였다. 즉, 수퍼바이지의 애착 유형 중 불안 애착이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결과가 있었던 반면에(박진희, 유미숙, 2011), 회피 애착과 자기개방 간의 상관관계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방 간의 상관관계보다 더 높았던 결과도 나타났다(Gunn & Pistole, 2012). 이는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과 자기개방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에 따라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의 하위 유형이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요인인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이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문화적 요인인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가 조절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전 연구들에서 불안정 애착과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의 하위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인 관점에서 수퍼바이지의 회피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불안정 애착이 높으면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인 집단주의, 규범에 대한 동조, 정서적 자기통제,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그리고 겸손이 높은 수퍼바이지들은 자기개방의 정도가 현저하게 낮아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다차원적인 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내적 요인으로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 불안정 애착-거절에 대한 염려를, 수퍼비전 관계 요인으로 역할갈등을, 문화적 요인으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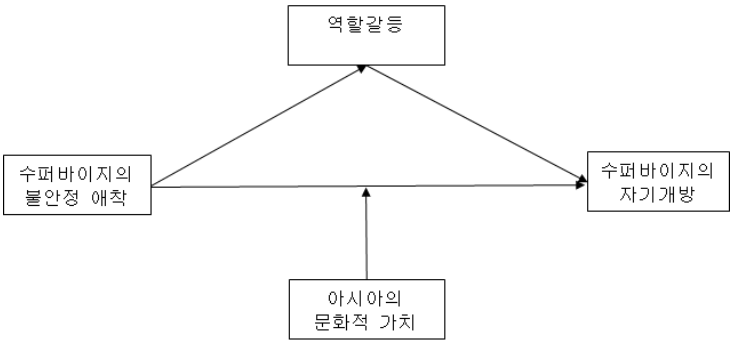

그림 1.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과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의 매개와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의 조절 모형

www.kci.go.kr

의 관계에 있어서 첫째,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 중 회피 및 거절에 대한 염려는 역할갈등의 매개를 통해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인 집단주의, 규범에 대한 동조, 정서적 자기통제,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겸손은 불안정 애착-회피 및 불안정 애착-거절에 대한 염려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모형을 아래와 같이 그림1에 제시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최근 6개월 이내 개인 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수퍼바이지 총 4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9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34세(*SD*=7.72)였고, 남자 10.7%, 여자 89.3% 이었다. 전공분야는 상담심리학 84.9%, 임상심리학 5.4%, 아동청소년학 3.0%, 발달심리학 2.2% 순이었으며, 현재 근무하는 상담기관은 대학상담실 44.1%, 지역청소년 상담기관 17.5%, 민간상담실 17.0%, 병원 6.8%, 학교 상담실 6.3% 순이었다. 이론적 경향은 절충주의 32.6%, 정신역동 23.9%, 인본주의 22%, 인지행동 13.0% 순이었다. 현재 학력은 석사졸업이 63.3%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과정 19.5%, 박사과정 15.4%로 나타났다. 평균 상담경력은 48.69개월(*SD*=35.01), 일주일 평균 상담시간은 7.96시간(*SD*=7.66)이었다. 현재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을 받은 기간은 평균 16.72개월(*SD*=22.01)이었으며, 수퍼비전을 받은 회기는 평균 15.88회기(*SD*=26.69)이었다. 수퍼바이저의 성별은 남자 17.7%, 여자 82.3%였으며,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경력은 평균 12.83년(*SD*=7.08)이었다. 수퍼바이저의 전공분야는 박사 졸업이 79.7%로 가장 많았으며, 박사과정 10.8%, 석사졸업 9.3% 순이었다. 수퍼바이저의 이론적 성향은 정신역동 33.3%, 절충주의 24.7%, 인본주의 16.1%, 인지행동 13.4% 순이었다.

연구 절차

먼저 전국 각지의 대학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및 사설 상담소와 접촉하거나 19명의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수퍼바이저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최근 6개월 이내에 수퍼비전을 받은 수퍼바이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각 기관이나 수퍼바이저가 직접 설문지를 받는 경우 응답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기관이나 수퍼바이저의 평가를 의식하여 수퍼바이지의 응답이 왜곡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관이나 수퍼바이저를 통해 수퍼바이지들에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함으로써, 수퍼바이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수퍼바이지들의 응답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설문에 응한 수퍼바이지에게는 연구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구한 후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문을 완성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측정 도구

www.kci.go.kr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Menefee와 Day, Lopez, McPherson(2014)가 개발하였고 신성만 등(2016)이 번안한 수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upervisee Attachment Strategies Scale)를 사용하였다. 회피와 거절에 대한 염려(이후 거절로 표기)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리커트 척도이다. 회피 하위척도는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피 척도에서 점수가 높아질수록 수퍼바이저를 신뢰하지 못하고 관계에 거리를 두는 경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내가 전문성을 갖추는데 있어서 수퍼바이저가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역채점 문항)”을 들 수 있다. 거절에 대한 염려 하위척도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절 척도에서 점수가 높아질수록 수퍼바이저로부터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수퍼바이저에게 재확인을 받고자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수퍼바이저가 나를 거절할까봐 걱정한다.”를 들 수 있다. Menefee 등(2014)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회피 .94, 거절 .88이었고, 신성만 등(2016)에서의 내적 신뢰도 회피 .87, 거절 .84, 전체 .8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회피 .84, 거절 .82, 전체 .87이었다.

역할갈등

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Olk와 Friedlander (1992)가 개발하였고 손은정과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2006)이 번안한 역할갈등 및 역할모호함 척도(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Inventory: RCRA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역할갈등과 역할모호함이라는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역할갈등이라는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역할갈등은 총 13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퍼바이지가 학생의 역할과 상담자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갈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수퍼바이저가 나의 내담자에게 어떤 기법을 사용하라고 권할 때 그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지만, 내 의견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를 들 수 있다. 손은정 등(2006)의 연구에서 역할갈등의 내적 신뢰도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87이었다.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을 측정하기 위하여 Siembor와 Ellis(2012)가 개발한 수퍼바이지 비개방 척도(Supervisee Non-Disclosure Scale: SND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은 원척도와 가장 유사하게 번안할 수 있도록 하며 번안의 질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역번안기법을 사용하였다(Hulin, Drasgow, & Komocar, 1982). 구체적인 절차로는 첫째, 원척도를 상담심리학 박사가 번안하였다. 둘째, 이중 언어 사용자(bilingual)가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영어로 역번안하였다. 셋째, 이중 언어 사용자(bilingual)이면서 심리학 박사인 두 사람이 원척도와 역번안한 영문 척도를 비교하여 각 문항에 대해 두 척도 간의 유사성을 1점부터 7점 사이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유사도 점수가 3점 이하로 평정된 문항에 대해 두 척도를 비교한 심리학 박사 2인의 자문을 통해 원척도에 충실하도록 한국어 번안본을 수정하였다.

수퍼바이지 비개방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과 연관된 정보나 수퍼비전과 연관된 정

www.kci.go.kr

보에 대한 개방의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수퍼바이저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 반응”이나 “상담 장면에서 내가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들”을 들 수 있다. 총 30문항이고 7점 리커트 척도를 기준으로 1점(완전히 개방함)에서 7점(전혀 개방하지 않음)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기개방의 내용이 수퍼비전에서 일어나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해당없음’은 Siembor와 Ellis(2012) 연구에서와 같이 의도적으로 수퍼바이저에게 숨긴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1점(완전히 개방함)으로 채점하였다. 원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수퍼바이지의 비개방이 높은 것을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점수를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수퍼바이지가 자기개방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검사에서 .91,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001로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적합성이 성립하였고, 모든 변수의 왜도가 -1.76에서 .78사이, 첨도는 -1.77에서 2.97사이에 분포해 다변량 정규분포를 만족하였다. 각 문항들의 공통성은 .34에서 .81로 나타났고 설명된 총 분산의 누적율은 42.43%였다. Siembor와 Ellis(2012)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전체 .91, 상담과 연관된 비개방 .84, 수퍼비전과 연관된 비개방 .91로 나타났다.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Kim 등(1999)이 개발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척도(Asian Cultural Values Scale)를 Kim 등(2005)이 다차원적 척도로 수정한 아시아계 미국인 가치 척도(Asian American Values Scale-Multidimensional: AAVS-M)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척도와 마찬가지로 번안은 역번안기법을 사용하였다. 총 42문항이고 7점 리커트 척도이다. 이 척도는 집단주의, 규범에 대한 동조, 정서적 자기통제,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겸손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단주의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단주의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것은 집단을 개인보다 더 중시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집단의 안녕은 개인의 안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를 들 수 있다. 규범에 대한 동조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범에 대한 동조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것은 사회적인 기준이나 규범을 수용하고 중시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사회적 규범, 기대, 관심을 인식하고 지켜야 한다.”를 들 수 있다. 정서적 자기통제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하위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강렬한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를 들 수 있다.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은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성공을 통해 가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가족을 위하여 학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를 들 수 있다. 겸손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겸손 척도의 점수가 높은 것은 자신을 칭찬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칭찬해서는 안 된다.”를 들 수 있다.

번안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검사에서

www.kci.go.kr

.90,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001로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적합성이 성립하였고, 모든 변수의 왜도가 -1.46에서 1.70사이, 첨도는 -1.26에서 5.53사이에 분포해 다변량 정규분포를 만족하였다.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들의 공통성은 .24에서 .81로 나타났고 설명된 총 분산의 누적율은 47.97%였다. Kim 등(2005)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전체 .89, 집단주의 .89, 규범에 대한 동조 .78, 정서적 자기통제 .82,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90, 겸손 .7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전체 .89, 하위척도는 각각 .81, .72, .71, .92, .57이었다. 하위척도 중 겸손의 내적 신뢰도가 .57로 매우 낮게 나타나 이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자료분석

먼저 SPSS 22.0을 사용하여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매개모형과 조절모형, 통합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와 불안정 애착-거절이 역할갈등의 매개를 통해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SP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 및 불안정 애착-거절과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집단주의, 규범에 대한 동조,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정서적 자기통제, 겸손)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SPSS Macro의 Model 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의 매개효과와 규범에 대한 동조의 조절효과가 동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SPSS Macro의 Model 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고, 불안정 애착, 불안정 애착-회피, 불안정 애착-거절, 역할갈등, 자기개방,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집단주의,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규범에 대한 동조,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정서적 자기통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료가 정상성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은 왜도가 < 2 이고 첨도가 < 7 이므로 정상성에 위배되지 않았다(Curran, West, & Finch, 1996). 자세한 결과는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불안정 애착과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의 매개 효과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와 불안정 애착-거절에 대한 염려가 역할갈등의 매개를 통해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SP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매개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그림 2,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먼저 불안정 애착-회피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의 매개효과를

www.kci.go.kr

표 1.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N*=392)

	1	2	3	4	5	6	7	8	9	10
1										
2	.87 **									
3	.81 **	.43 **								
4	.59 **	.56 **	.43 **							
5	-.59 **	-.54 **	-.44 **	-.58 **						
6	.20 **	.09	.27 **	.15 **	-.22 **					
7	.09	.02	.14 **	.05	-.17 **	.71 **				
8	.02	-.04	.09	.02	-.03	.58 **	.36 **			
9	.19 **	.13 **	.20 **	.05	-.15 **	.69 **	.41 **	.34 **		
10	.20 **	.08	.29 **	.20 **	-.21 **	.85 **	.44 **	.35 **	.40 **	
평균	60.98	33.98	26.99	30.40	136.99	3.57	3.14	4.84	3.44	3.26
표준편차	14.07	9.07	7.57	8.92	32.07	0.57	0.87	0.69	0.71	1.05
왜도	0.19	0.76	-0.09	0.13	0.26	-0.21	-0.18	-0.68	0.08	-0.05
첨도	-0.28	0.87	-0.34	-0.47	-0.70	-0.02	-0.23	0.62	0.12	-0.58

주. $^{**}p<.01$

주. 1 불안정 애착, 2 불안정 애착-회피, 3 불안정 애착-거절, 4 역할갈등, 5 자기개방, 6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7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_집단주의, 8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_규범에 대한 동조, 9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_정서적 자기통제, 10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_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독립변인인 불안정 애착-회피가 종속변인인 수퍼바지이의 자기개방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였다(c=-1.91, p<.001). 둘째, 독립변인인 불안정 애착-회피가 매개변인인 역할갈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a=.55, p<.001). 셋째, 매개변인인 역할갈등이 종속 변인인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1.43, p<.001).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인 역할갈등이 종속변인인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이후 독립변인인 불안정 애착-회피가 종속변인인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나 그 크기가 감소하였다(c'=-1.12, p<.001). 불안정 애착-회피가 역할갈등의 매개를 통해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79(a×b=.55×-1.43)이었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95%의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 -1.03과 상한값 -.58은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역할갈등은 불안정 애착-회피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불안정 애착-거절과 수퍼바이지의

www.kci.go.kr

표 2. 불안정 애착과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의 매개효과 (*N*=392)

		종속 변인: 역할갈등				종속 변인: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예측변인		*B*	*SE*	*t*		*B*	*SE*	*t*
불안정 애착-회피	*a*	0.55	0.04	13.36***	*c'*	-1.12	0.17	-6.71***
역할갈등		-	-	-	*b*	-1.43	0.17	-8.41***
		R^2=.31				R^2=.40		
		F(1, 390)=178.49, *p*<.001				*F*(2, 389)=130.51, *p*<.001		
매개변인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역할갈등		-.79		.12		-1.03		-.58
예측변인		*B*	*SE*	*t*		*B*	*SE*	*t*
불안정 애착-거절	*a*	0.51	0.05	9.40***	*c'*	-1.02	0.19	-5.43***
역할갈등		-	-	-	*b*	-1.70	0.16	-10.70***
		R^2=.18				R^2=.38		
		F(1, 390)=88.27, *p*<.001				*F*(2, 389)=118.88, *p*<.001		
매개변인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역할갈등		-.86		.13		-1.10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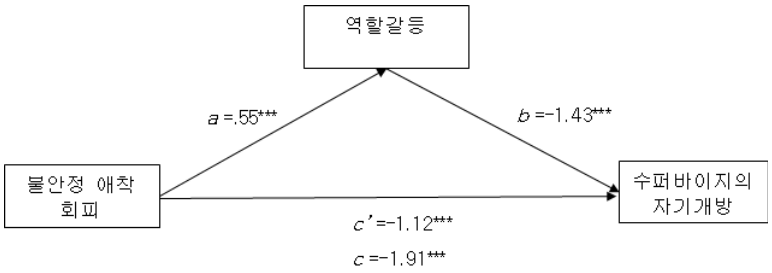

그림 2.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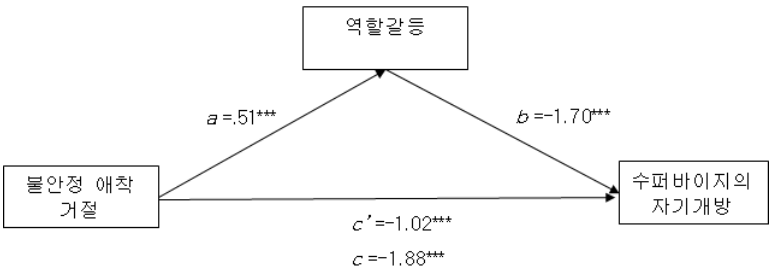

그림 3.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거절과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의 매개효과

www.kci.go.kr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독립변인인 불안정 애착-거절이 종속변인인 수퍼바지이의 자기개방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였다(c=-1.88, p<.001). 둘째, 독립변인인 불안정 애착-거절이 매개변인인 역할갈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a=.51, p<.001). 셋째, 매개변인인 역할갈등이 종속변인인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1.70, p<.001).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인 역할갈등이 종속변인인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이후 독립변인인 불안정 애착-거절이 종속변인인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나 그 크기가 감소하였다(c'=-1.02, p<.001). 불안정 애착-거절이 역할갈등의 매개를 통해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86(a×b=.51×-1.70)이었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95%의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 -1.10과 상한값 -.61은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역할갈등은 불안정 애착-거절과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안정 애착과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의 조절 효과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와 불안정 애착-거절에 대한 염려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가 조절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SPSS Macro의 Model 1을 사용하여 조절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한 뒤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불안정 애착-회피(B=-17.62~-17.02, p<.001)와 불안정 애착-거절(B=-14.33~-13.36, p<.001)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중 집단주의(B=-5.18, p<.01; -3.50, p<.05)와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B=-5.78, p<.001; -2.10, p<.05) 역시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중 규범에 대한 동조와 불안정 애착-회피의 상호작용 항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triangle R^2$=.01, p<.05), 이를 통해 규범에 대한 동조는 불안정 애착-회피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의 관계를 조절함을 알 수 있다.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중 규범에 대한 동조의 조절효과가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조절변인의 특정 값(조절변수의 ±1 표준편차)에서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정선호, 서동기, 2016), 규범에 대한 동조와 불안정 애착-회피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든 조건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조건에서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자세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또한 조절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안정 애착-회피와 규범에 대한 동조가 ±1SD 값일 때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의 값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불안정 애착-회피가 낮으면서 규범에 대한 동조가 낮은 경우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www.kci.go.kr

표 3. 불안정 애착과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조절효과 (*N*=392)

	종속 변인: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종속 변인: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예측변인	*B*	*t*	R^2	△*R*	△*F*	예측변인	*B*	*t*	R^2	△*R*	△*F*
불안정 애착-회피(a)	-17.54	-12.79 ***	.32	.00	1.15	불안정 애착-거절(a)	-13.88	-9.34 ***	.20	.00	.31
집단주의(b)	-5.18	-3.84 **				집단주의(b)	-3.50	-2.39 *			
상호작용항(a×b)	-1.46	-1.07				상호작용항(a×b)	-0.75	-.55			
불안정 애착-회피(a)	-17.62	-12.94 ***	.30	.01	4.76 *	불안정 애착-거절(a)	-14.04	-9.58 ***	.20	.00	2.50
규범에 대한 동조(b)	-1.55	-1.13				규범에 대한 동조(b)	0.37	.25			
상호작용항(a×b)	2.69	2.18 *				상호작용항(a×b)	2.18	1.58			
불안정 애착-회피(a)	-17.02	-12.38 ***	.30	.00	.29	불안정 애착-거절(a)	-13.79	-9.23 ***	.20	.00	.13
정서적 자기통제(b)	-2.39	-1.73				정서적 자기통제(b)	-1.83	-1.23			
상호작용항(a×b)	0.69	.54				상호작용항(a×b)	0.50	.37			
불안정 애착-회피(a)	-17.28	-12.65 ***	.33	.00	1.84	불안정 애착-거절(a)	-13.36	-8.78 ***	.20	.00	.00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b)	-5.78	-4.28 ***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b)	-3.03	-2.10 *			
상호작용항(a×b)	-1.82	-1.36				상호작용항(a×b)	-0.06	-.05			

주. *** p<.001, ** p<.01, * p<.05

표 4. 규범에 대한 동조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조절효과	*SE*	*t*	LLCI	ULCI
규범에 대한 동조	-1*SD*	-20.31	1.90	-10.70 ***	-24.02	-16.58
	Mean	-17.62	1.36	-12.94 ***	-20.30	-14.94
	+1*SD*	-14.93	1.77	-8.41 ***	-18.42	-11.44

주. *** p<.001

통합 모형의 검증

역할갈등은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중 규범에 대한 동조는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을 조절하였다. 따라서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의 매개효과와 규범에 대한 동조의 조절효과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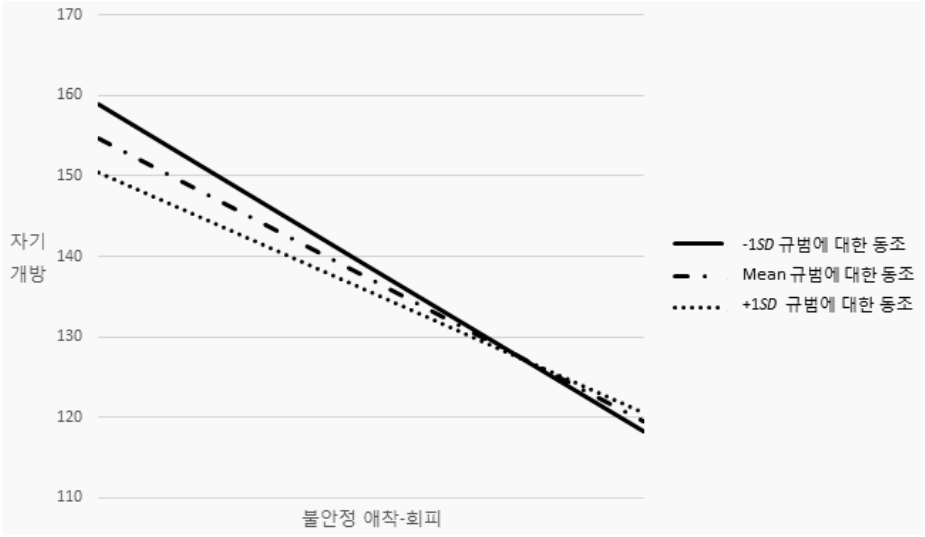

그림 4. 불안정 애착-회피와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서 규범에 대한 동조의 조절 효과

가 동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SPSS Macro의 Model 5를 사용하여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동시에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 그림 5에 제시하였다.

매개 효과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불안정 애착-회피가 매개변인인 역할갈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a=4.99, p<.001), 매개변인인 역할갈등이 종속 변인인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1.41, p<.001). 또한, 매개변인인 역할갈등이 종속변인인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이후 독립변인인 불안정 애착-회피가 종속변인인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c'=-10.51, p<.001). 불안정 애착-회피가 역할갈등의 매개를 통해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7.07이었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95%의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 -9.29과 상한값 -5.21은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조절 효과 분석 결과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중 규범에 대한 동조와 불안정 애착-회피의 상호작용 항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t=2.12, p<.05), 이를 통해 규범에 대한 동조는 불안정 애착-회피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의 관계를 조절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절효과가 어떤 조건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조절변인의 특정 값(조절변수의 ±1 표준편차)에서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불안정 애착-회피와 규범에 대한 동조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든 조건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통합 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불안정 애착-회피는 역할갈등의 매개를 통해 수퍼바이지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규범에 대한 동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불안정 애착-회피가 낮을수록 역할

www.kci.go.kr

표 5. 불안정 애착과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의 매개효과와 규범에 대한 동조의 조절효과(N=392)

예측변인	종속변인: 역할갈등				
	B	*SE*	*t*	LLCI	ULCI
불안정 애착-회피	4.99	0.37	13.36 ***	4.26	5.73
예측변인	종속변인: 자기개방				
	B	*SE*	*t*	LLCI	ULCI
불안정 애착-회피	-10.51	1.52	-6.92 ***	-13.50	-7.53
역할갈등	-1.41	0.17	-8.33 ***	-1.75	-1.08
규범에 대한 동조	-1.10	1.13	-.87	-3.57	1.37
불안정 애착-회피 × 규범에 대한 동조	2.40	1.14	2.12 *	.17	4.64
매개변인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간접효과	*SE*	LLCI	ULCI
역할갈등		-7.07	1.06	-9.29	-5.21
조절변인	조절효과: 규범에 대한 동조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조절효과	*t*	LLCI	ULCI
규범에 대한 동조	-1*SD*	-12.92	-6.58 ***	-16.78	-9.06
	Mean	-10.51	-6.92 ***	-13.50	-7.53
	+1*SD*	-8.11	-4.43 ***	-11.70	-4.51

주. *** p<.001, ** p<.01,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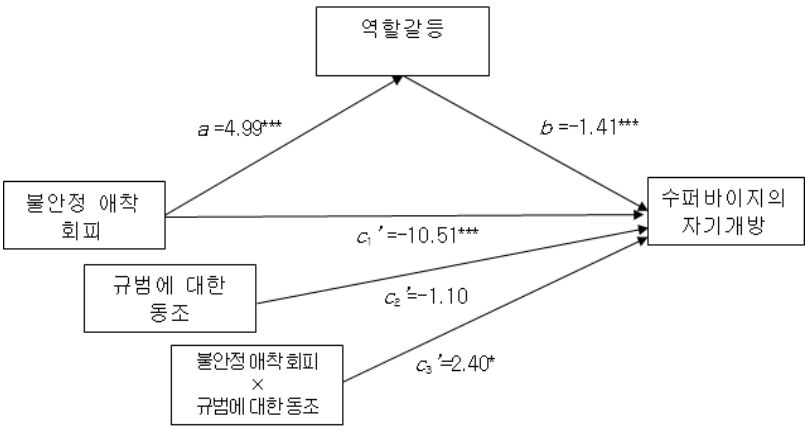

그림 5.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의 매개와 규범에 대한 동조의 조절 모형

www.kci.go.kr

갈등이 낮아져 수퍼바이지들의 자기개방의 정도가 더 높아지는 동시에, 불안정 애착-회피가 낮으면서 규범에 대한 동조가 적을 경우 수퍼바이지들이 자기개방의 정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수퍼비전 성과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 내적 요인으로서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 수퍼비전 관계 요인으로서 역할갈등, 그리고 문화적 요인으로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은 역할갈등의 매개를 통해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불안정 애착의 유형에 상관없이 회피와 거절에 대한 염려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이 역할갈등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불안정 애착이 자기개방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와 불안정 애착-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이성관계에서 갈등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나(Ben-Naim et al., 2013; Pistole & Arricale, 2003), 수퍼비전 장면에서 역할갈등과 정적 관계가 있었던 결과들과 일치하며(신성만 등, 2016; Menefee et al., 2014), 갈등 상황에서 수퍼바이지들은 자기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어려워하였으며 역할갈등이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친 결과와도 일치한다(조윤진 등, 2014; 하정, 홍지영, 2011; Hess et al., 2008; Siembor, 2012). 이를 통해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나 불안정 애착-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수퍼비전 관계에서 수퍼바이지는 수퍼바이저와의 차이로 인한 갈등 등 역할갈등이 높아지며 역할갈등이 높아지면서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이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수퍼바이저에 대한 회피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불안정 애착이 높을수록 수퍼바이저가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했을 때, 수퍼바이저와의 차이에 대해 더 큰 위협으로 지각하고 정서조절에 문제가 생기며 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갈등이 높아지면서 내담자와 관련된 문제나 수퍼비전에 대한 생각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워지며 자신의 반응에 대해 개방하는 정도가 점차 낮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는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중 규범에 대한 동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가 낮으면서 규범에 대한 동조가 낮은 경우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수퍼바이저가 자신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수퍼바이저와 거리를 두는 경향이 낮으면서 동시에 수퍼비전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규범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수퍼비전에서 자기개방을 기꺼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Kim 등(2003)이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는 다른 변인과

www.kci.go.kr

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담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의 하위 유형인 불안이나 회피 애착이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가 일관되지 못했던 이전 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박진희, 유미숙, 2011; Gunn & Pistole, 2012). 결국 이전 연구결과들이 일관되지 못했던 것은 불안정 애착과 자기개방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규범에 대한 동조의 조절효과 크기가 크지 않으며, 탐색적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중 정서적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간접적이면서 비개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했던 결과와는 달리(Park & Kim, 2008),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자기통제와 불안정 애착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정서적 자기통제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의 하위 요인들 중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과 집단주의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미치는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성취를 통해서 가족이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수퍼비전에서 자기개방을 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정서적 표현과 이에 대한 지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수퍼비전 장면에서는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간의 대화가 위계적인 상하 관계 속에서 교육과 자문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라고 보여진다(Bang & Park, 2009; Shim, 2002). 결국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의 하위요인들 중 어떤 요인이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가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Kim 등 (2001)의 제안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상적 대화에서는 정서적 자기통제가 자기개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반해, 위계적 특성을 가진 수퍼비전에서는 집단주의,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그리고 규범에 대한 동조가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 중 어떤 요인이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므로, 표집이나 맥락이 달라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거절에 대한 염려와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였으나,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 유형 중 불안정-거절에 대한 염려와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불안정 애착-거절에 대한 염려가 높을수록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이 두 변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매개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나 불안정 애착-거절에 대한 두려움 모두 역할갈등의 매개를 통해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쳤던데 반해, 조절효과에 있어서는 불안정 애착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대해 불안정 애착-회피와 규범에 대한 동조 간의

www.kci.go.kr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데 반해 불안정 애착-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서, 불안정 애착의 유형에 따라 조절효과에 있어서 다른 결과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넷째,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는 역할갈등의 매개를 통해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중 규범에 대한 동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수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회피는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회피 애착이라는 개인 내적 요인은 역할갈등이라는 수퍼비전 관계에서의 문제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 자기개방이 낮아지게 되기도 하고, 불안정 애착-회피라는 개인 내적 요인과 규범에 대한 동조라는 문화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자기개방이 낮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결국 개인 내적 요인, 수퍼비전 관계 요인, 그리고 문화적 요인은 동시에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에 수퍼비전 장면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불안정 애착-회피가 높은 수퍼바이지의 경우 수퍼바이저는 규범에 대한 동조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퍼바이지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관찰하고 반응해야 하며, 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인 수퍼비전 관계에서 발생하는 역할갈등의 매개역할에 대해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불안정 애착과 수퍼비전 작업동맹 간의 관계, 그리고 수퍼비전 작업동맹과 자기개방 간의 관계 등 긍정적 수퍼비전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데 반해(박진희, 유미숙, 2011; Gibson et al., 2019; Gunn & Pistole, 2012), 본 연구에서는 역할갈등이 불안정 애착과 자기개방 간에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있어서 부정적인 수퍼비전 관계의 역할 역시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비교연구에서 수퍼비전 작업동맹이나 수퍼비전 스타일과 같은 다른 수퍼비전 관련 변인들보다 역할갈등의 평균 차이가 가장 컸다는 결과나(Son & Ellis, 2013), 우리나라의 수퍼바이지가 자기개방을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수퍼비전의 상하관계를 의식하며 자기개방이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었다는 질적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손승희, 2005) 불안정 애착이 높은 수퍼바이지들에게 역할갈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계속 탐색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둘째,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개인 내적 요인이나 수퍼비전 관계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에 대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의 역할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문화적 요인이 수퍼비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가 다른 수퍼비전 요인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아적 문화적 가치에 민감한 수퍼바이저와 그렇지 않은 수퍼바이저 간의 수퍼비전

www.kci.go.kr

의 효과의 차이는 어떠한지 등 문화적 요인과 수퍼비전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수퍼비전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지가 경험하는 역할갈등이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문제에 대해 먼저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능하다면 수퍼바이지의 애착 유형을 살펴보고 수퍼바이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나 과도하게 의존하려는 경향에 대해 개방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퍼비전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신념이 과도하게 높다면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수퍼바이지의 비개방 척도와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척도에 대해 원척도와 동등한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역번안기법을 사용하여 충실하게 번안작업을 수행하였으나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이러한 한계 내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두 척도의 타당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수퍼비전 경험을 최대한 표준화하기 위해 6개월 이내 개인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수퍼바이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평균적으로 현재의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 받은 기간은 약 16개월, 수퍼비전 받은 횟수는 평균 약 15회 정도였으며 참여자 간 편차가 컸다. 그러나 동일한 수퍼바이저에게 적어도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예: 1주일에 1회) 수퍼비전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퍼비전 관계나 자기개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수퍼바이저에게 정기적으로 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수퍼바이지들(예: 인턴 프로그램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선행연구들의 이론적인 기반이 충분하지 못해 탐색적으로 살펴본 것이었고, 분석 결과 불안정 애착-회피와 자기개방 간의 관계에서 규범에 대한 동조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였으나 효과크기가 크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아사아의 문화적 가치의 하위요인들이 수퍼바이지의 자기개방 및 수퍼비전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비율을 살펴볼 때 남자 10.7%, 여자 89.3%로 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기개방이나 수퍼비전 관계 형성에 있어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맥락 내에서 해석되어져야 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의 구성비율을 수정한 후 본 연구 결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진희, 유미숙 (2011). 수퍼바이지의 성인애착이 놀이치료 수퍼비전 과정에서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 작업동맹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1), 129-142.

손승희 (2005).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내용, 이유 및 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www.kci.go.kr

57-74.

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 (2006). 수퍼비전 작업 동맹과 상담자 경력 수준이 역할 어려움과 수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695-711.

신성만, 박영근, 김윤희, 박명준 (2016). 슈퍼바이지 애착 전략 척도(Supervisee Attachment Strategies Scale) 국내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615-636.

정선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57-282.

조윤진, 이은진, 유성경 (2014). 상담심리치료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의 부정적인 경험의 변화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841-877.

주영아, 강순화, 조하나 (2014). 수퍼바이지가 지각한 작업동맹이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과 수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퍼바이지 자기개방을 매개로. 청소년상담연구, 22(1), 151-171.

하정, 홍지영 (2011). 집단 수퍼비전 경험을 통한 상담자의 발달적 변화 과정. 아시아교육연구, 12(3), 279-303.

Bang, K., & Park, J. (2009). Korean supervisors' experiences in clinical supervi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8), 1042-1075.

Ben-Naim, S., Hirschberger, G., Ein-Dor, T., & Mikulincer, M. (2013). An experimental study of emotion regulation during relationship conflict interactions: The moderating role of attachment orientations. *Emotion, 13*(3), 506-519.

Bennet, S., BrintzenhofeSzoc, K., Mohr, J., & Saks, L. V. (2008). General and supervision-specific attachment styles: Relations to student perceptions of field supervisor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4*(2), 75-94.

Bernard, J. M., & Goodyear, R. K. (2014).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5th ed.). Boston: Allyn & Bacon.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s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Chen, J. C., & Danish, S. J. (2010). Acculturation, distress disclosure, and emotional self-disclosure within Asian populations.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3), 200-211.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Foynes, M. M., Platt, M., Hall, G. C. N., & Freyd, J. J. (2014). The impact of Asian values and victim-perpetrator closeness on the disclosure of emotional, physical, and sexual abuse.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6*(2), 134-141.

Genuchi, M. C., Rings, J. A., Germek, M. D., & Cornish, J. A. E. (2015). Clinical supervisors' perceptions of the clarity and comprehensiveness of the supervision competencies framework.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9*(1), 68-76.

Gibson, A. S., Ellis, M. V., & Friedlander, M. L. (2019). Toward a nuanced understanding of

www.kci.go.kr

nondisclosure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6*(1), 114-121.

Gunn, J. E., & Pistole, M. C. (2012). Trainee supervisor attachment: Explaining the alliance and disclosure in supervision.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6*(4), 229-237.

Hess, S. A., Knox, S., Schultz, J. M., Hill, C. E. Sloan, L., Brandt, S., et al., (2008). Predoctoral interns' nondisclosure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Research, 18*(4), 400-411.

Hulin, C. L., Drasgow, F., & Komocar, J. (1982). Applications of item response theory to analysis of scale transl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6), 818-825.

Kim, B. S. K., Atkinson, D. R., & Umemoto, D. (2001). Asian cultural values and the counseling process: Current knowledge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4), 570-603.

Kim, B. S. K., Atkinson, D. R., & Yang, P. H. (1999). The Asian Values Scale: Development, factor analysis, validation, and reliab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42-352.

Kim, B. S. K., Hill, C. E., Gelso, C. J., Goates, M. K., Asay, P. A., & Harbin, J. M. (2003). Counselor self-disclosure, East Asian American client adherence to Asian cultural values, and counseling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3), 324-332.

Kim, B. S. K., Li, L. C., & Liang, C. T. H. (2002). Effects of Asian American client adherence to Asian cultural values, session goal, and counselor emphasis of client expression on career counseling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3), 342-354.

Kim, B. S. K., Li, L. C., & Ng, G. F. (2005). The Asian American Values Scale-Multidimensional: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1*(3), 187-201.

Konx, S. (2015). Disclosure-and lack thereof-in individual supervision. *The Clinical Supervisor, 34*(2), 151-163.

Ladany, N., & Friedlander, M. L.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and trainees' experiences of 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4*(3), 220-231.

Menefee, D. S., Day, S. X., Lopez, F. G., & McPherson, R. H. (201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upervisee attachment strategies scale (SA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2), 232-240.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Olk, M. E, & Friedlander, M. L. (1992). Trainees' experience of 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in supervisory relationship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3), 389-397.

Park, Y. S., & Kim, B. S. K. (2008). Asian and European American cultural values and communication styles among Asi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14*(1), 47-56.

Petersen, J., & Le, B. (2017). Psychological distress, attachment and conflict resolution in

www.kci.go.kr

romantic relationships. *Modern Psychological Studies, 23*(1), 1-26.

Pistole, M. C., & Arricale, F. (2003). Understanding attachment: Beliefs about conflic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1*(3), 318-328.

Riggs, S. A., & Bretz, K. M. (2006). Attachment processes in the supervisory relationship: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7*(5), 558-566.

Shen F., & Tsui, L. (2018). Revisiting the Asian values thesis: An empirical study of Asian values, internet use, and support for freedom of expression in 11 societies. *Asian Survey, 58*(3), 535-556.

Shim, S. S. (2002). Cultural landscapes of pastoral counseling in Asia. *American Journal of Pastoral Counseling, 5*(1), 77-97.

Siembor, M. J. (2012). *The relationship of role conflict to supervisee nondisclosure: Is it mediated by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iembor, M. J. & Ellis, M. V. (2012). *Validation of the supervision Nondisclosur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8th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Conference on Clinical Supervision. Adelphi University, Garden City, NY.

Son, E. & Ellis, M. V. (2013).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clinical supervision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sychotherapy, 50*(2), 189 - 205.

Watkins, C, E. Jr., Budge, S. L., & Callahan, J. L. (2015). Common and specific factors converging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A supervisory extrapolation of the Wampold/ Budge psychotherapy relationship model.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25*(3), 314-235.

Wei, M., Su, J. C., Carrera, S., Lin, S, & Yi, F. (2013). Suppression and interpersonal harmony: A cross-cultural comparison between Chinese and Europe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4), 625-633.

원 고 접 수 일 : 2018. 12. 18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2. 25
게 재 결 정 일 : 2019. 04. 10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9, Vol. 31, No. 3, 725-748

The effects of supervisees' insecure attachment, role conflict and Asian cultural value on self-disclosure

Eunjung Son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conceptualized supervisees' insecure attachment as an individual internal factor, role conflict as a supervisory relationship factor, and Asian cultural values as a cultural factor potentially affecting supervisees' self-disclosure, and investigated the relations among these variables. A total of 392 supervisees, who had recently engaged in individual supervision within the past 6 months, completed the following questionnaires: SASS, RC, SNDS, and AAVS-M. Analyses indicated that role conflict mediated the relations between insecure attachment-avoidant and insecure attachment-rejection and self-disclosure. Conformity to norms of Asian cultural values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insecure attachment-avoidant and self-disclosure. Asian cultural values did not moderate the relation between insecure attachment-rejection and self-disclosure. Finally, insecure attachment-avoidant had an effect on self-disclosure through the mediation of role conflict and the simultaneous moderation of conformity to norm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are discussed.

Key words : supervisee self-disclosure, Asian cultural values, supervisee insecure attachment, role conflict

www.kci.go.kr